

대행 스님 세계평화 원력 뉴욕에 우뚝 서다

한마음선원 뉴욕지원, 13일 대법당 준공식 개최

대행 스님의 세계평화 원력을 품은 법당이 뉴욕 한복판에 우뚝 섰다.

한마음선원 뉴욕지원(지원장 혜봉)은 9월 13일 뉴욕 플라싱에서 뉴욕지원 대법당 준공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마음선원 본원 및 전국 지원 스님 50여명과 선법합창단 등 뉴욕지원 및 국내의 지원 사부대중 700여 명이 참석했다.

한마음선원 뉴욕지원 대법당은 1,200여 평의 대지 위에 108평 규모의 전통 목조 양식으로 건립됐으며, 이는 국외에 건립된 전통 사찰 건물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법당 안에는 前 한마음선원장인 대행 스님의 진영과 스님의 일생을 담은 벽화가 함께 조성됐다.

이 같은 뉴욕 대법당 조성에는 무형문화재 제74호 신용수 대목장이 도편수를 맡았으며 박찬수(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불상), 임석환(중요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 및 탱화), 이수화(중요무형문화재 제113호 칠장, 창호 등 채색), 임동조(석공예 명장, 계단 및 난간), 이종진(전통한옥미장 문화재기능 제787호, 꽃담장), 조찬형(충남 소목무형문화재 제18호, 창호), 변종복(금속공예 주조 제1호 명장, 우주담 및 난간)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재 명장들이 대거 불사에 참여했다.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다양한 명장들이 참여한 대법당 불사는 2005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0여 년간의 공기(工期) 끝에 완공됐다.

지하에는 종교 건물 전문 기업 대표인 제임스 마철키 시공하고 디자이너 안젤로가 디자인한 300여 평 규모의 현대식 건물이 들어섰다. 지하 건물에는 무대 시설을 갖춘 소공연장과 인터넷 생방송이 가능한 최첨단 방송실 등이 갖추어져 있었으며, 앞으로 문화 예술을 통한 부처님의 가르침 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준공식에서 한마음선원 제단 이사장 혜수 스님은 “은사이신 대행 스님께서 세계평화를 위해 이곳에 터전을 마련하도록 했다. 스님의 뜻이 아니었으면 시작할

108평 규모, 전통 방식으로 조성 문화재 명장 참여해 10년 불사 지하에는 문화·방송 공간 들어서

수 없는 불사였고, 스님의 제자이기에 뜻을 받들어 이루어 마칠 수 있었다”며 뉴욕지원 사부대중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대행 스님께서 국외지원의 문을 열어 잠자고 있는 이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어떠한 행로를 걸어오셨는지 상상도 못할 것”이라며 불사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자 법회에 동참한 사부대중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뉴욕지원장 혜봉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준공식은 오랜 기간 동안 이 불사를 원만하게 회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국내외 스님들과 신도님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



한마음선원 뉴욕지원 대법당 전경. 9월 13일 준공식을 가진 뉴욕지원 대법당은 108평 규모의 전통 목조 양식으로 건립됐으며, 신용수 대목장 등 문화재 명장이 대거 참여해 10년 동안 이뤄진 대작불사다.



대법당 내부에는 대행 스님의 진영과 일생이 담긴 벽화도 조성됐다.



9월 13일 열린 준공식에서 이사장 혜수 스님 등이 커팅식을 하고 있다.

자리이자 함께 축하하는 잔치자리”라며 먼 곳까지 와 준 사부대중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다.

도편수를 맡아 불사를 진행한 신용수 대목장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됐다. 수여식 직후 신 대목장은 “뉴욕지원 대법당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광화문, 승례문과 더불어 대대로 문화유산으로 남을 것”이라며 “세계의 중심 뉴욕에 한국의 전통 건축물을 세우

는데 동참할 기회를 준 뉴욕지원 스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마음선원 뉴욕지원은 자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1년 간의 준비 기간을 가진 후, 불사 동참자와 관심 있는 현지인들과 관련 기관, 언론들을 초대해 외국인들을 위한 대법당 준공법회를 별도로 가질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의성 대국사 삼화상 진영, 조선 1782년, 의성 대국사(불교중앙박물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27호

화엄경부터 고승 진영까지 ‘한눈에’

불교중앙박물관, 가을 기획전... 오는 11월 22일까지

개운사 화엄경·대국사 진영 두 가지 테마로 전시 구성 보물 19점 등 총 56점 선배

개운사 아미타불 복장 유물인 화엄경 일부와 대국사 조사 진영들을 한 자리에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화법)은 9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 2개월 간 기획전을 ‘개운사 아미타부처님께 봉안된 화엄경(華嚴經)의 세계’와 ‘대국사의 불화’ 두 가지 테마로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개운사와 대국사에서 기탁해 불교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보물 19점을 포함한 56점의 성보문화재들이 전시된다.

먼저 개운사의 화엄경 전시는 한국 서지사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볼 수 있다. 1980년대 개운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20권에 달하는 <화엄경>은 하나의 불상에서 가장 많은 수량의 화엄

경이 발견된 사례이며, 간행시기도 불상 조성 이전인 9~12세기까지 올라간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복장물 중 <화엄경>은 불상과 별도로 보물 제1650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의성 대국사의 불화들에서는 조선 시대 고승들의 진영을 주목해볼만 하다. 특히 전시회에 출품된 진영 중 지용·나옹·무학 스님이 한눈에 그려진 삼화상 진영은 가장 이른 시기에 그려진 것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 또한 함께 전시되는 휴정과 사명당 유정의 진영도 조선시대 조사신앙의 궤적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와 함께 불교중앙박물관은 ‘개운사 복장 전적과 화엄경’, ‘한국 불교계의 삼화상’을 주제로 10월 5일 오후 2시 부터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정각스님(중앙승가대학 겸임교수), 황인규 교수(동국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님을 초빙하여 특강도 개최한다.

신성민 기자

“전쟁 당시 日불교, ‘전사자 영웅만들기’ 열중”

이치노헤 스님, 한일불교문화학회 세미나서 주장

다카하시 츠쿠메이 日 불교가 ‘전사자 영웅만들기’를 통해 전쟁을 독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한국 등 동아시아를 침탈했던 일본의 불교가 ‘전사자 영웅만들기’를 통해 전쟁을 독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본 조동종 운상사 주지 이치노헤 쇼고 스님은 오는 10월 2일 한일불교문화학회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다카하시 츠쿠메이를 통해 본 조동종의 전쟁” 제하의 논문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이치노헤 스님은 논문에서 전쟁 당시 일

본 조동종 스님인 다카하시 츠쿠메이(高橋竹迷, 1883~1951)를 주목했다. 한시의 대가였던 다카하시는 <응용전시인도법어(應用戰時引導法語)>를 저술했다. ‘인도법어’는 일본 조동종 장례의식 중 중요한 부분으로 장례의 도사(導師)가 고인의 덕을 찬탄하고 정토로 인도하는 것이다. 즉, 다카하시의 <응용전시인도법어>는 전사자들을 위한 법어 용례 모음집으로 볼 수 있다.

<응용전시인도법어>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이치노헤 스님이 <응용전시인도법어>의 총 25편의 법어에 들어간 어구를 분석한 결과 △천황 △무후 △성전 △영령 등 네 가지로 분류됐다.

이치노헤 스님은 “천황을 위해 일신을 던



일본 조동종 이치노헤 쇼고 스님(사진 왼쪽)은 10월 2일 한일불교문화학회 세미나에서 전쟁 당시 조동종 승려인 다카하시 츠쿠메이(사진 오른쪽)의 인도법어집을 분석하고 조동종의 전쟁 참여를 비판했다.

지고, 진실로 국가에 보은해, 훈공을 올려 열반에 드는 것을 독려했고 있다”면서 “당시 조동종의 전쟁은 불교인의 최종 목표인 열반을 약속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전사자 영웅만들기를 통해 수많은 청년

들을 전쟁으로 보냈을 다카하시 츠쿠메이는 전후에도 스스로가 이끈 조동종의 전쟁에 대해 반성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치노헤 스님은 “지금 일본 조동종은 다카하시 츠쿠메이를 거의 기억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이유로 조동종의 전쟁이 아직도 제대로 검증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일본불교의 전쟁참화와 동국사’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세미나에는 1만여 점에 가까운 한일 근대사 자료를 소장한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이 ‘일제시기 자료목록 현황’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되며, △김성순 금강대 교수의 ‘제국주의 전쟁과 우물가의 여인들’ △나이조 카즈노부 나고야 대국교 선생의 ‘진종대국파의 해외개교와 천황폐봉안의 의미’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신성민 기자

세월호기간제교사 순직인정 2차 오체투지

노동위, 9월 23일 유가족·노동자일동·성소수자 등 동참

세월호 희생자 기간제교사故이희재·김초원 선생 순직인정을 촉구하며 불교계가 오체투지를 실시했다.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혜음, 이하 노동위)는 9월 23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인사혁신처 앞까지 2차 오체투지를 진행했다. 이번 오체투지에는 두 기간제 교사 유가족을 비롯해 불교시민단체, 쌍용자동차·KT·전교조 노동자, 성소수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태고종 총북노동인권위원장 진화 스님은 “국가는 국민을 위한 국가인가 묻고 싶다”며 “살아서는 아이들에게 똑같은 ‘선생님’이라 불렀는데 죽은 후에 어찌 차



별이 있을 수 있는가 안타깝지만 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노동위는 지난 9월 9일 1차 오체투지를 실시한 바 있다.

박이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종교적 성찰을 통한 울림과 감동, 구도 문학의 선구자, 정찬주

“이 세상에는 첫눈이 오면 공휴일이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불국 성지를 찾아 떠난 순례와 답사 기행

순례하면서 나그네로 다니지 말고 주인공으로 다니기 바랍니다. 예전대 전생애에 왔던 곳인데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순례하면서 가져야 할 자세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가 전체가 되고 전체가 하나가 되는 순례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보고 듣는 것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불국기행』, 236쪽, 수필 스님 법문 중에서

깨달음이 있는 여행은 행복하다

불국기행 佛國紀行

정찬주 지음 | 유희영 사진
352쪽 | 값 18,000원 | 4도 | 반양장

“한글은 절에서 태어났다!”

세종대왕과 신미 대사의 한글 창제 이야기

작가는 소설의 존재 이유를 새롭게 확대시키는 동시에 지적 감동에 취하게 하는 큰일을 했다. 『조정래(소설가)』

한글이 불교 사상의 한 유산이라는 해석은 우리 삶의 미래에 찬란한 이정표를 제시해준다. 『한승원(소설가)』

이 소설이야말로 한글 창제의 진실을 밝히는 영원한 햇불이다. 『최호승(시인)』

태조에게 무학이 있었다면 세종대왕에게는 신미가 있었다!

천강에 비친 달

정찬주 지음 | 328쪽 | 값 15,000원

작가 정찬주

주소 10881 경기도 파주시 문발리 207 2층
전화 031-955-6230 | 팩스 031-944-2858
홈페이지 www.jkkg.co.kr